

양궁 男단체전, 대만 잡고 올림픽 2연패...김제덕 2관왕

김우진, 리우올림픽 이어 단체전 2연패
준결승에선 日 슛오프 끝에 힘겹게 꺾어

한국 남자양궁이 대만을 꺾고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오진혁(40·현대제철), 김우진(29·청주시청), 김제덕(17·경북일고)으로 구성된 남자대표팀은 26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덩여우정·당즈준·웨이준형)을 세트 점수 6-0(59-55 60-58 56-55)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24일 혼성단체전, 전날 여자단체전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세 번째 금메달도 양궁에서 나왔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4개)을 달성한 한국은 단체전에 걸린 금메달 3개를 합쳐 2회 연속 전 종목 석권에 성공 다가섰다. 남녀 개인전만 남았다.

또 남자팀은 올림픽 단체전 2연패와 함께 통산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진은 올림픽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고,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단체전에서 동메달에 만족했던 만형 오진혁은 9년 만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막내 김제덕은 혼성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여자팀의 안산(광주여대)과 함께 2관왕이다.

고비도 있었다. 준결승에서 일본에 탈미를 잡힐 뻔 했다.

4세트까지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슛오프 승부까지 벌인 것. 슛오프에서 28-28로 비겼다.

스�오프에서도 동점이 나오면 정중양에 가장 가까운 활살을 기준으로 승리팀을 정하는데 김제덕의 활살이

가장 가까웠다.

김제덕의 활살이 중앙에서 3.3cm, 일본의 것은 5.77cm에 자리했다. 약 2.4cm 차이의 극적인 승리였다.

한국은 김우진-김제덕-오진혁 순으로 활을 쏘았다.

1세트 6발 중 5발을 10점에 꽂으며 대만의 기를 눌렀다. 일본전 준결승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상승세가 대단했다. 59-55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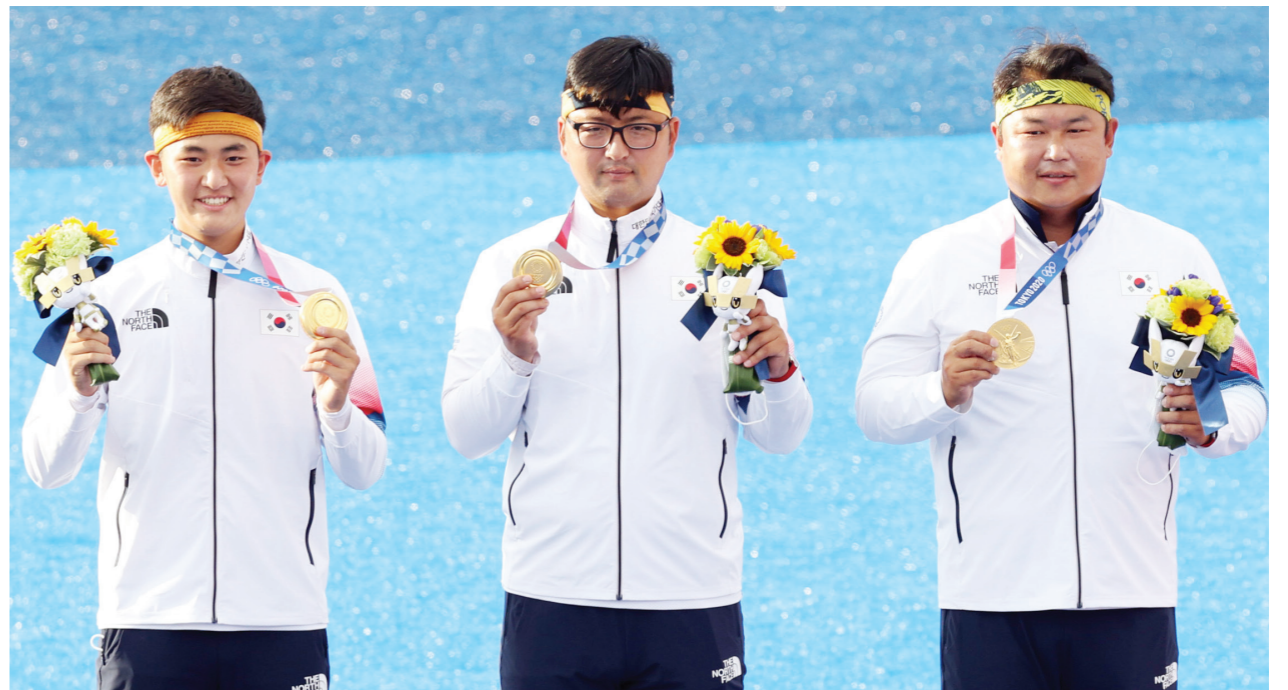
2세트에선 대만이 58점을 쏘며 무섭게 반격했지만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한국은 6발 모두를 10점에 꽂으며 따돌렸다. 몸이 완전히 풀려 기세를 말릴 수 없었다.

3세트에서 56-55로 마무리했다.

양궁은 금메달 3개를 추가하며 총 26개로 역대 한국 올림픽 최다 금메달 종목 지위를 굳건히 했다.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 거머쥔 24개를 이미 넘어섰다.

2관왕을 차지한 김제덕과 안산은 개인전을 통해 역대 한국에서 한 명도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양궁 단체전 시상식에서 메달 세리머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오지 않았던 하계올림픽 단일대회 3관왕에 도전한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의 안현수, 진 선유가 2006 토리노올림픽에서 3관왕

에 오른 게 전부다.

뉴시스

‘디펜딩챔피언’ 한국야구대표팀 도쿄 입성...“올림픽 2연패 도전”

29일 이스라엘·31일 미국
“첫 경기 이스라엘전 총력”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도쿄에 입성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26일 오후 일본 나라타공항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 우승의 신화를 쓴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대표팀은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투지를 앞세워 다시 한 번 정상에 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일본에 입성한 후 나라타공항에서 스태프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차분하게 준비를 해왔다. 우리가 뜻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경기, 한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B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29일 이스라엘, 31일 미국과 일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6개국을 A조와 B조에서 조별예선을 치른 후 탈락하는 팀 없이 남아 스테이지로 진행되는다. 한국이 B조 1위를 할 경우 A조 1위와 맞붙어 준결승 진출을 노린다.



2020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김경문 감독이 2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 2위 또는 3위를 해도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 진출이 가능하다. >다음은 김경문 감독과의 일문 일답

-도쿄에 입성한 소감은.
“선수들과 차분하게 준비를 잘 했다. 우리가 뜻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경기, 한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2연속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최근 프로야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말을 많이 할 상황이 아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팬들이 경기를 보시고 시원할 수 있도록 한경기, 한경기 온 힘을 다해 하겠다.”

-국내 평가전을 통해 느낀 점은.
“경기를 하면서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그래도 다행인 건 타자들이 평가전 3경기를 통해 투수들의 공을 좀 쳐봤다는 것이다. 지금 머릿속에 온통 이스라엘전만 생각하고 있다.”

-첫 경기가 중요할텐데.
“이스라엘도 총력전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타자들이 감이 올라올 때까지 투수들이 맞대응을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선 제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과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는데
“일본은 최강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는 일본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먼저 상대한 후에 일본전은 생각을 해볼 것이다. 지금 일본을 이야기하는 건 빠르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떤가.
“선수들 모두 이 곳에 왔다. 이를 동안 몸이 안 좋은 선수는 컨디션을 조절하는 등 29일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대표팀에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외리, 김진욱 등 젊은 선수들이 있다. 19세 이정도 좌완 투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빨리 국제대회 경험을 하고 좌완 에이스들로 성장해서 다음 대회를 이끌어 나갈으면 한다.”

뉴시스



(좌측부터) 조정부 이은정 감독, 3학년 서에서, 2학년 김지선, 유정현 코치

광주체육중 조정부, 금빛 물살 가르다

제50회 소년체전에서 3학년 서에서·2학년 김지선 금메달

광주체육중 조정부가 25일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3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대항 조정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부 더블스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소년체전 조정 종목 선정은 1인 1종목만 가능해 광주체육중 조정부 이은정 감독과 유정현 코치는 고심 끝에 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더블스컬 종목을 선택했다. 그 결과 두 학생은 금빛 물살을 가르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전 경기에서 광주체육중 서에서, 김지선 학생은 3라인에서 출발했다. 스타트부터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아 300m지점에서 선두로 빠져나와 2~4위 선수들과 월등한 차이를 내며 독주해 1위로 골인했다.

광주체육중 3학년 서에서 학생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6회 장보고기

대회 싱글 종목에서 우승 소감으로 2021 소년체전에서 꼭 우승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

광주체육중 조정부 감독이기도 한 광주조정협회 신영금 전부회장은 “광주체육중 서에서, 김지선 학생의 수상 훈련을 항상 주시했다”며 “두 선수에게 실수 없는 레이스만이 우승에 다가갈 수 있다고 지도했고, 두 선수의 화합이 이번 금메달 획득의 패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체육중 김제안 교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을 잘 참고 이번 제50회 소년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선물한 우리 조정부 감독, 코치,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광주체육중은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5년만에 역대 최연소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탄생
日 니시야 모이지, 스케이트보드 금

85년만에 역대 하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도쿄올림픽 일본 대표팀 니시야 모이지(13)가 여자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드 대회에서 15.26의 점수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브라질 선수 레이사 릴(13)은 14.64점으로 은메달을 얻었고, 일본 선수 나가야마 후나(16)는 14.49점으로 동메달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니시야 모이지는 85년만에 최연소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고 USA투데이 등 외신들이 전했다.

역대 최연소 하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미국의 다이빙 선수 마조리 게스트링으로, 그녀는 1936년 13살 268일의 나이에 금메달을 땀다. 게스트링보다 나이가 63일 더 많은 니시야 모이지는 13살 330일로 게스트링에 뒤를 이은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마지막 올림픽 마친 ‘세계랭킹 1위’ 이대훈, 은퇴 선언

“내가 유일하게 하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 후배들에게 기회 가야”



태권도 세계 랭킹 1위인 이대훈이 2020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 선언을 했다.

이대훈은 25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남자 68kg급 동메달 결정전

에서 15-17로 저 노메달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이대훈이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훈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58kg급

에서 은메달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68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5회 연속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011년, 2013년에는 63kg급 금메달, 2017년에는 68kg급 금메달, 2019년에는 68kg급 동메달을 땀다.

아시아게임에서도 2010년과 2014년 63kg급에서, 2018년에는 68kg급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대훈은 “내가 유일하게 하지 못한 것이 올림픽 금메달이다. 다음 올림픽을 기다리기에는 버거운 것 같았다.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게임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가야 한다”고 며 “공부하면서 트레이닝 쪽 지식을 쌓고 싶다. 계속 공부하고, 좋은 선수를 육성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 펜싱, 전원 탈락

김지연·윤지수·최수연 8강 진출 실패

한국 여자 펜싱 사브르 김지연(33·서울시청)의 9년 만의 금메달 도전이 16강에서 좌절됐다.

김지연은 26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16강에서 마리엘 자구니스(미국)에게 12-15로 졌다.

1피어리드를 7-8로 마친 김지연은 2피어리드에서 9-9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이후 내리 3실점하며 흐름을 빼앗겼고, 이를 뒤집지 못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지연은 이번 대회

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 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16강에서 도전이 멈췄다. 함께 16강에 오른 윤지수(서울시청)와 최수연(안산시청)도 16강에서 모두 탈락했다.

윤지수는 16강에서 자네브 다이베코바(우즈베키스탄)에 12-15로 패했다.

최수연도 16강에서 안나 마튼(헝가리)에 12-15로 탈미가 잡히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지연과 윤지수, 최수연이 모두 16강에서 발길을 돌리면서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의 개인전 메달 도전도 무산됐다.